

GT Industrial Technology & Market Review
글로벌 산업기술·시장동향

아세안·인도 산업·에너지 동향
(7월 2주 주요 News Clipping)





▶ CONTENTS

I. 에너지 동향

1. 필리핀, 신재생 에너지 개발자를 위한 세제혜택 가이드라인 마련 (7.4)
2. 인도네시아, 러시아 원자력 개발 제안 고려 (7.4)

II. 산업 동향

1. 베트남, 순환경제 추진과 탄소중립 목표달성 의지 표명 (6.28)
2. 태국, 지역경제발전 강화를 위해 3,300억 바트 투자 (6.28)
3. 인도네시아, 신임 무역산업부 장관 5대 중점사업 추진 (7.1)
4. 말레이시아, 지식경제 기반의 디지털 이니셔티브 출범 (7.4)
5. 베트남 빈패스트,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작 (7.5)

III. FDI 및 협력 동향

1. 필리핀,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리스트 업데이트 (6.29)

1. 필리핀, 신재생 에너지 개발자를 위한 세제혜택 가이드라인 마련 (7.4)

- ❖ 필리핀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청정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추세에 신재생 에너지 개발자는 소득세 면제 및 0%의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포함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마련
- ❖ 국세청(BIR)의 제7호 세입 규정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2008년 재생 에너지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정책 및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동 문서는 두테르테 정부의 임기가 종료되기 이틀 전 카를로스 도밍게스 전 재무국장이 서명함
- ❖ 필리핀 정부는 재생에너지 시스템 사용에 국가 및 지역 역량 개발을 제도화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효과적·효율적 산업용 재생에너지 자원의 활용도를 향상시킬 목표를 세움
- ❖ 동 규정에 따라 기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상업 운영 이후, 또는 프로젝트가 전력망에 전력을 송전할 준비가 될 때부터의 7년 동안 소득세 면제(ITH)를 받을 수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신규 투자도 동일한 ITH기간을 받음
- ❖ BIR은 7년 이상 상업적으로 운영되거나 운영 중인 기존 시설을 취득, 운영 또는 관리하는 모든 재생에너지 개발자는 에너지부(DOE)에 등록할 때 순 과세 소득에 대해 10%의 법인세율을 납부한다고 밝힘
- ❖ 앞서 필리핀 정부는 재생에너지 개발과 토착 자원 개발을 통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표명하였으며, 현재 국가 에너지 조합의 29%만이 재생 에너지이며 로드맵에 따라 2030년 35%, 2040년 50%까지 인상할 계획을 세움

2. 인도네시아, 러시아 원자력 개발 제안 고려 (7.4)

- ❖ 인도네시아 에너지 광물자원 장관 Arifin Tasrif는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러시아의 제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러시아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들도 양자 협력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 건축을 제안한다고 밝힘
- ❖ Tasrif장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미래의 청정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위한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힘
- ❖ Tasrif는 앞으로 20년 동안 많은 국가에서 원자력 기술을 적용하고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 이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 이후 러시아 기업이 인도네시아 원자력 발전소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 바 있음
- ❖ 푸틴 대통령은 필요한 경험과 역량, 기술을 갖춘 러시아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원자력 산업 발전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표명
- ❖ 원자력 발전소 개발에 대해 러시아와 협력하기 전에 인도네시아 정부, 하원(DPR), 국가에너지위원회(DEN)는 현재까지 원자력을 최후의 대안으로 대처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II 산업 동향

1. 베트남, 순환경제 추진과 탄소중립 목표달성 의지 표명 (6.28)

- ❖ 베트남 환경자원부(MONRE)가 2022년 6월 28일 "순환 경제를 위한 베트남 국가 행동 계획 개발을 위한 킥오프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음
- ❖ 이번 행사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개념을 기반으로 이후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베트남 경제를 개발한다는 공통 목표에 대해, 정부 고위간부, NGO, 산학계 전문가의 통찰력이 공유되며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
- ❖ 베트남 Le Minh Khai 부총리가 6월 7일 순환 경제 개발 계획을 승인하고 여러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는 제687/QD-TTg호의 결정문을 발행
 - 본 계획은 2030년까지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집약도를 최소 15% 감축시킬 목표를 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지원한다고 밝힘
- ❖ 베트남은 2025년까지 생성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85%를 재사용·재활용하고, 바다와 해양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50% 줄이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분해되지 않는 비닐봉지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양을 감소시킬 목표를 세움
- ❖ 순환 경제 개발을 위한 지식, 전문 지식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 및 원조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표명함
- ❖ 베트남은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고 기업이 동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순환 경제에 대한 민관 대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힘

2. 태국, 지역경제발전 강화를 위해 3,300억 바트 투자 (6.28)

- ❖ 6월 28일 태국의 내각은 동부경제회랑(EEC)의 기반 시설, 유틸리티 및 통신 네트워크 개선을 위해 3,300억 바트의 예산을 승인하며, 동 자금은 2027년까지 71개 프로젝트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힘
- ❖ Prayut Chan-ocha 총리는 내각이 디지털 허브가 되려는 태국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 운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하였다고 공언
- ❖ 또한, 총리는 물류, 스마트 산업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국가의 잠재력을 향상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 EEC가 태국과 아세안의 경제 엔진이 될 것이라고 밝힘

3. 인도네시아, 신임 무역산업부 장관 5대 중점사업 추진 (7.1)

- ❖ 무역 산업부(DTI)의 신임 장관 Alfredo Pascual이 영세기업 지원강화, 제조업 촉진, 비즈니스 환경 완화, 투자 유치와 수출 시장 확대 및 조직 구조조정이 우선순위라고 밝힘
- ❖ Pascual 장관은 디지털 기술, 혁신, 공급망과 중소기업의 연계, 지역 산업 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통해 영세 기업에서 소기업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중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사다리를 통한 기업성장의 필요성 강조
- ❖ 제조업의 경우, DTI의 제조업 부활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공급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대규모 일자리 창출 섹터에 대한 로드맵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힘
- ❖ 또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활동이 증가함에 전자 제품 및 반도체 제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광물을 원료로 수출하는 대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내에서 통합 광물 가공 시스템을 개발하자는 전임 Ramon Lopez 장관의 비전과 동일한 계획을 표명

4. 말레이시아, 지식경제 기반의 디지털 이니셔티브 출범 (7.4)

- ❖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25년간의 진행된 MSC Malaysia를 계승하는 Malaysia Digital이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출시
- ❖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 공사(Malaysia Digital Economy Corporation, MDEC)가 Malaysia Digital 이니셔티브는 기업, 인재 및 투자를 장려하고 유치하는 동시에 말레이시아 기업과 주민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국가 전략 이니셔티브라고 밝힘
- ❖ 이번 이니셔티브는 말레이시아의 선도적인 디지털 경제 기관인 MDEC를 통해 통신 및 멀티미디어부(K-KOMM) 주도로 진행되며 7월 4일 Ismail Sabri 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급 간부에 의해 출범됨
- ❖ 정부는 MDEC를 통해 DE Rantau와 Digital Trade라는 두 가지의 초기 말레이시아 디지털 지원 프로그램(Pemangkin)을 도입할 계획
 - DE Rantau는 말레이시아를 디지털 허브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그램 진행, Digital Trade는 표준과 규제 방식에 대한 상호 운용성과 조화와 국내외 무역 촉진
- ❖ Malaysia Digital은 유연성, 민첩성 및 관련성이라는 세 가지의 핵심 포인트로 강화되어 국가를 개발 시키며 향후 디지털지원 프로그램 발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5. 베트남 빈패스트,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작 (7.5)

- ❖ 베트남 자동차 제조업체인 빈패스트(VinFast)가 PVOIL 주유소에서 최초로 전기 자동차 (EV) 충전소와 주유소를 통합하는 계획을 진행
- ❖ 이번 첫 장소가 하이퐁시 갓하이군에 있으며 150kW급 초고속 충전기 1개와 60kW급 고속 충전기 5개를 갖추고 있어 한 번에 12대의 차량 충전 가능
- ❖ EV 충전기를 주유소와 통합하는 것은 PVOIL이 4월 연례 총회에서 발표한 현대적인 에너지 공급업체가 되려는 계획과도 일치함
- ❖ 빈패스트 EV 충전 네트워크 센터 Vu Thang부장은 올해 PVOIL의 주유소에 300개의 충전소를 개발할 계획이 있다고 밝힘
- ❖ 또한, 6월 3일 빈패스트가 다른 연료 유통업체인 Petrolimex와 주유소에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PVOIL과 Petrolimex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연료 소매업체로 각각 3,500개와 5,500개의 주유소를 운영 중)
- ❖ 베트남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소비세 인하, 등록비 3년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충전소가 도시와 교통 인프라에 의무화되어야 하며 정부에 충전소에 대한 표준과 정책을 개발할 것을 촉구함

1. 필리핀,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리스트 업데이트 (6.29)

- ❖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며 필리핀인 투자만 허용되는 산업 목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목록 A와 목록 B를 포함하는 제175호의 행정 명령(EO)을 6월 27일에 발행
- ❖ 목록 A는 헌법 및 특정 법률에 따라 외국인 소유권이 제한되는 분야를 명시하는 한편, 목록 B는 안보, 방위, 건강과 도덕적 리스크, 중소기업 보호에 대한 이유로 외국인 소유를 제한하는 분야를 규정
 - 목록 A는 특정 법률에서 제정된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지만 목록 B는 최소 2년에 한 번만 개정됨
- ❖ 목록 A에는 녹음 및 인터넷 비즈니스를 제외한 대중 매체, 법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 직업 수행, 납입자본금이 PHP 2,500만 미만인 소매유통 기업, 필리핀 전 시민의 투자를 제외한 협동조합, 사립 탐정과 경비원 서비스 제공 회사 운영, 소규모 채굴, 핵무기의 제조·수리·유통 등으로 규정
- ❖ 목록 B에 따라 최대 40%의 외국인 지분이 허용되는 분야가 총기류, 화약, 다이내마이트, 폭발물, 망원경, 저격용 조준경 및 기타 유사한 장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경찰의 허가가 필요한 제품 또는 재료의 제조, 수리, 저장 또는 유통, 위험한 약물의 제조 및 유통, 국영기업인 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과의 투자 계약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도박 등 규정

글로벌 산업기술·시장동향

아세안·인도 산업에너지 동향 News Clipping (7월2주)

발 행 일 | 2022년 7월

작 성 자 | 베트남 거점 이재민 소장 (jmlee@kiat.or.kr)

문 의 처 | KIAT 국제협력기획팀 (jskim11@kiat.or.kr)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본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반드시 원문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자료는 GT온라인 홈페이지(www.gtonline.or.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GT
GLOBAL TECH KOREA Industrial Technology & Market Review
글로벌 산업기술·시장동향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국 워싱턴 D.C. 거점
김은정 소장



KIAT
유럽 벨기에 거점
강주석 소장



KIAT
베트남 하노이 거점
이재민 소장



KEIT(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국 실리콘밸리 거점
박성환 소장



KEIT
유럽 독일 거점
박효준 소장



KORIL(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유럽 이스라엘 거점
최수명 소장